

너랑 나랑 우리말로

쉽표, 마침표.



우리말과 우리글의
밝은 앞날을 기대하며 만든
4월 1차 게시 내용을
소개합니다.



우리말로 다듬어보는 '말 다리미'



펫 시터 - 반려동물 돌보미 2

**아트테리어 -
예술 인테리어, 예술 장식 3**

목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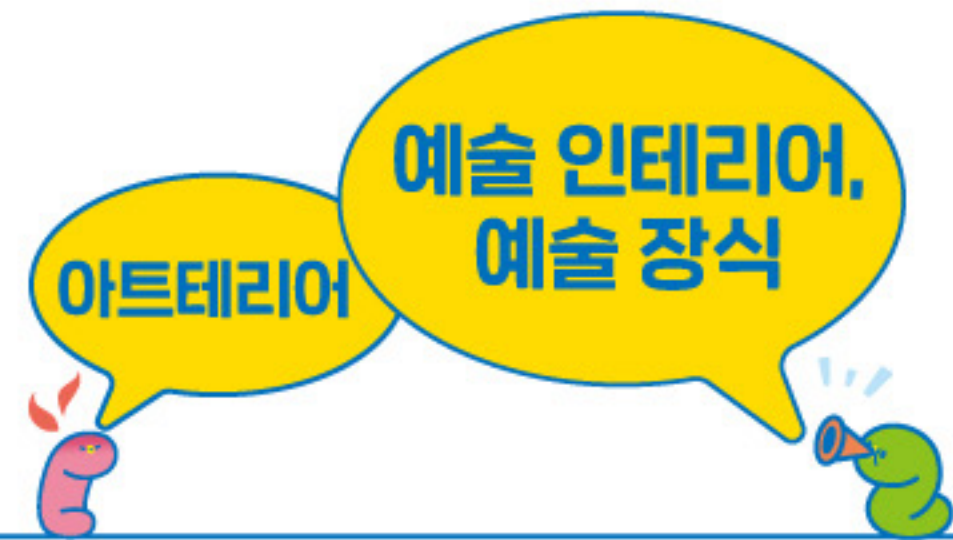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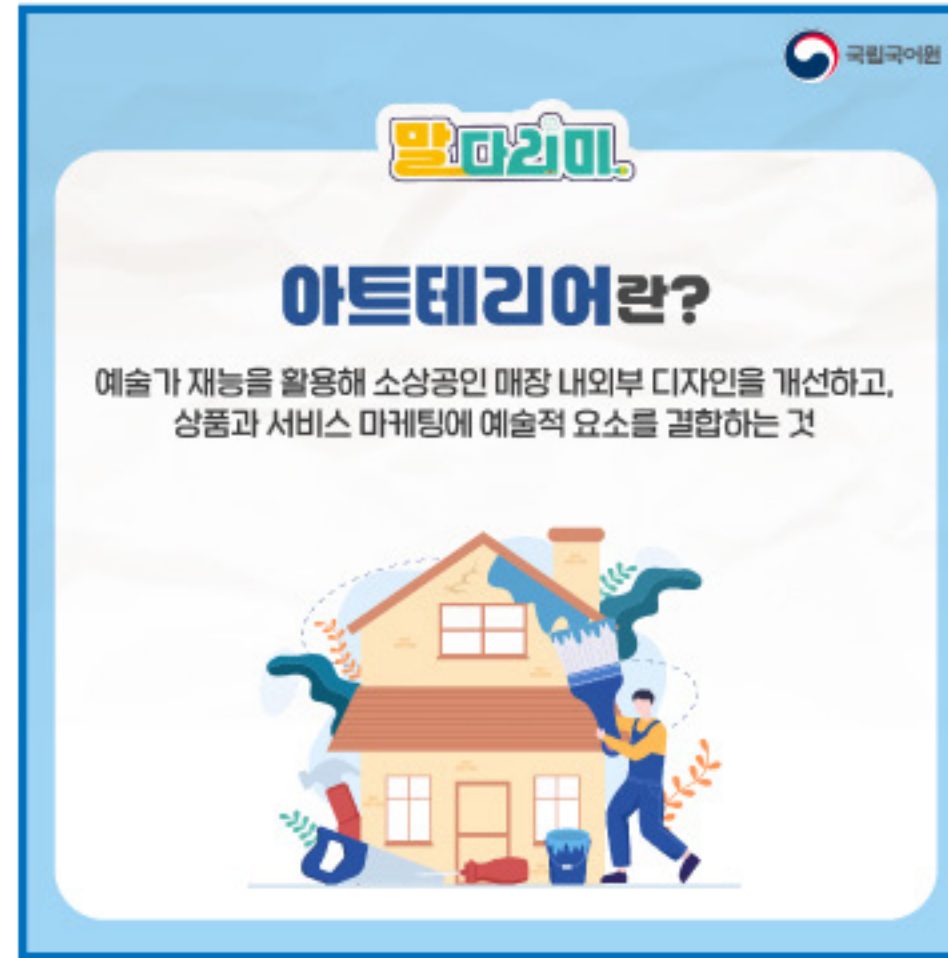


너랑이가 알려 주는 '묻고 답하기'



안/안 4





궁금해요!

'않-'과 '안'을 적을 때 헷갈려요. 어떻게 구별해서 써야 하나요?

이렇게 써요!

'않다'는 '아니하다'의 준말이고, '안'은 '아니'의 준말입니다.
'않다'는 동사 또는 보조 용언이고, '안'은 부사로 그 쓰임새가 다릅니다.

예를 들어, '아무 말도 아니하다.'의 '아니하다'를 줄일 때에는
'아무 말도 않다.'와 같이 '않다'를 쓰고,
'아니 먹다.'의 '아니'를 줄일 때에는 '안 먹다.'와 같이 '안'을 씁니다.

아무 말도 아니하다 ⇨ 아무 말도 **않다**
아니 먹다 ⇨ **안** 먹다





2025년 4월 호 1차 **심포, 마침표.**